

마을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마을을 다시 보자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마을 - 상호작용의 진원지

마을엔 사람들이 살고 있다 - 표현의 안전지대 만들기

마을엔 관계가 있다 - 개입의 안전지대 만들기

마을엔 삶이 있다 - 누구나 꿈꾸지만 같이 꾸는 꿈이 더 좋다.

마을엔 미래가 있다 - 나에서 우리로 가는 길이 미래가 된다.

상호작용의 진원지 마을 - 생각과 경험의 공유지

인간은 생존법 중 하나로 마을을 선택했던 오래된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는 그런 기억과 경험이 공유 되지 않고 각자 생존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 자본의 시대가 제시한 삶의 방식은 이제 마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생각과 고민의 시간을 안배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삶의 원형이 담겨 있는 마을이 오래 갈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마을은 단지 잠을 자고 가족단위의 삶의 공간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다시 관계가 만들어 지는 마을이 등장 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단절된 관계가 다시 만들어 져야 하고 그 관계가 자기 삶을 살 힘이 되는 마을.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하는지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런 마을들이 모여진 도시나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이 갖는 힘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은 곧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의 도시이고 지역문화정체성이 만들어 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각자의 현장에서 문화적 접근법들이 만들어 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개인에게 머물러 있으면 개인지 혹은 암묵지가 된다. 하지만 마을이란 공유지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공유지, 사회지가 된다.

그렇게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이 사라지거나 묻히는 순간들을 우리는 무심히 놓치거나 버려진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 그것이 왜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생각하려 하지도 못한다. 나에게만 집중된 시간을 살아야 했기에 남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거나 가치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작용의 진화 과정이 마을에 적용된다면 마을의 진화와 관계의 질적 변화는 지진급 일 것이다. 지식경영계의 노나카의 말을 빌어도 마을의 무수한 암묵지들이 공유지가 되어 가는 과정을 설계 한다면 마을의 변화는 놀라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관계의 즐거움을 찾아가야한다. 또한 서로 잘보고 잘 듣기 위한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하다.

마을엔 사람들이 살고 있다 - 표현의 안전지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제대로 표현 하면서 사는게 참 힘든 세상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상이나 특별한 날이나 또는 긴장되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는 입을 다물고 중간지점에서 서 있는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늘 받으면서 살아 왔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스스로 먼저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 걸 주저하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그래서 입 다물고 있기에 익숙하거나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안전 하지 않다는 강박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갖는 걸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아닌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생각과 느낌을 이미지로 전달 받아 내 것인양 하는데 익숙해져 간다.

그렇지만 몇 번의 질문과 자연스러운 시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찾아 가게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표현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보기.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에 공감해 주기 정도만 되어도 자기를 내놓는데 주저함이 사라진다.

관계의 태도가 나의 입을 열게 하고 남의 입을 열어 간다. 그런 시간들은 서로의 귀를 동시에 열어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간의 관계는 잘 보고 듣겠다는 태도가 기본이다. 이 기본이 지켜졌을 때 우리는 자기를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와 네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마음이다.

마을엔 관계가 있다 - 개입의 안전지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꼭 불편하고 어려운 걸까?

사람들은 세상과의 고립을 선택하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편먹기에 익숙해져 간다. 다르면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의 울타리를 치는데 익숙해져 간다. 하지만 내가 사는 세상 어디에나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산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걸 두려워해 아예 단절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규정해 버린다. 그렇다면 그런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아예 단절하고 사는 것이 과연 안전 할까? 언제 까지 다른 결의 삶들과 단절하고 나와 비슷한 부류들과만 살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무작정 묻지마 행위들이 난무하는 사회다. 사회안전망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서로서로가 안전망이 되어져야 한다. 문제는 문제로 풀어야 한다. 격리나 불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름의 이유나 현상에 대해 이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보감에는 “한 가지 풀만 먹고 자란 사슴의 뿔은 한 가지 병만 치료 할 수 있고 30가지 풀을 먹고 자란 사슴의 뿔은 30가지 병을 고친다” 고 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은 그렇게 많은 풀들을 먹기 위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하는 과정이 세상 살이의 원리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개입의 안전지대가 만들어 지면 관계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잘 들어주고 잘 보고 같이 잘 느끼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오는 길이 뚫린다. 개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본능처럼 살아 있다. 아이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대하는 현장을 보라. 그들에게는 개입에 대

한 두려움이나 관계의 벽을 치는 일들이 없다. 단지 관계의 두려움은 학습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관계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있고 그 아이들의 삶의 시작은 마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을 개입과 참견의 안전지대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을엔 삶이 있다 - 다양성에 기반한 생각과 경험의 보고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갈등과 문제로 인식하면 그것은 문제다. 하지만 다양성에 기반한 가치로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가치이고 자원이다.

마을엔 오랜 삶을 산 사람들이 공간과 관계하면서 살아온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오늘과 내일에서 자연스럽게 지우거나, 눈 돌려 애써 찾지 않는 시대다. 세상의 이목은 매스컴에서 제시하는 단초적인 현상에 매몰되게 한다. 진짜 자기 삶과 주변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작업은 등한시한다. 하지만 마을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적응하고 일궈낸 삶의 기록과 대안들이 많이 녹아있다. 지구의 위기를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갖춰야 할 생존본능의 감각들이 마을에 있다. 본능적 삶의 감각들을 되돌리려는 작은 시도들이 가능한 곳이 마을이고 마을의 핵심적 자원과 가치는 다양한 삶의 경험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서른 가지의 풀을 먹고 자란 사슴뿔의 귀함은 마을 어디에서나 발견 할 수 있다. 백 명이 백 개의 꿈과 이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두의 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그 꿈의 원류를 찾아 갈 필요가 있다. 그 가슴속의 꿈들이 만들어 지기까지의 이유와 목적들이 모여 지기 시작하면 나와 너의 꿈이 만나는 교집합이 생긴다. 그 교집합에 합의하고 동의하고 양해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같이 꿈꾸면서 그 꿈에 다가 가는 방법이다.

마을엔 미래가 있다

개인이 혼자 사는 이야기들이 전파를 타는 시대다.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 산다는 것에 의미를 찾아 나서 TV 프로그램으로 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인가?

자본주의 사회이든 사회주의 사회이든 세상이란 개념에서 나란 개념으로 이완되는 시기를 이야기 한다. 홀로 살면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다들 떠들어 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개인의 세상살기와 대응법이 개발 되고 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자본이 움직여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최첨단 마케팅 분야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마케팅 기법과 포장술들이 등장 한다.

세상속의 부속품들이 되어 가는 것 같다. 딱 그만큼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규정 지어 가고 있다. 더 이상 확장이나 관계의 진화를 논의 할 수 없게 만든다.

마치 이런 현상이 대세라도 되는 듯 조장된 시각을 갖게 만든다.

그런 시대에 같이 사는 즐거움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거나 의미화 하는 시대정신은 저 뒤편에 물러나 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재미나 의미를 가치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공동체성을 강화하거나 동질감을 갖게 되면서 협의와 양해와 동의가 자연스럽게 이뤄 질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것을 가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능한 미래를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출발점은 먼저 자기 관점이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다. 곧, 자기 생각하기와 자기 관점 갖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의 자기와 주변을 잘 보는 것이다. 마스크에서 이야기 하는 세상살이가 아닌 자기살이가 필요하다. 내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아 가는 시간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는 것이 순서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은 내 주변을 보면서부터 가능하다. 스크린은 자기를 비추지 않는다. 스크린의 과장된 이미지들은 나를 다른 차원에 가둬둔다. 하지만 자기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을 찬찬히 바라보고 듣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된다. 세상의 답이 저 멀리 있는 1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우선이다.

대부분의 일상은 세상이 주는 이미지와 소식에 나를 맡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관점이 아닌 세상이 강요하는 이미지에 전도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을의 상식을 만들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시대의 문화가 될 때 미래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